



환율·금리 '폭등' 서민 가계 '휘청'



상장사 돈 줄 마른다

경기 침체 여파 현금 수입 급감

567개社 유동성 117% 1.33P ↓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이 경기침체에 따른 현금수입 감소 여파로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567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제조업체의 6월 말 기준 유동비율은 117.93%로 작년 말 대비 1.33%포인트 떨어졌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지급능력 또는 신용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인다.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유동성이 건전하며 20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조상대상 상장사의 유동자산은 284조2천663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15.45% 늘었지만 단기차입금과 매입채권 등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는 241조403억원으로 16.76% 증가했다. 외상 매입금인 매입채무는 68조6천334억원으로 11.51% 증가했고 단기차입금은 40조3천477억원으로 50.01% 급증했다.

10대그룹 계열사의 유동비율은 112.21%로 작년 말 대비 1.17%포인트 개선됐으나 나머지 상장사들은 123.33%로 3.56%포인트 악화됐다.

그룹별로 보면 금호아시아나(155.56%)와 LG(131.16%), 삼성(123.12%), 현대자동차(122.78%), GS(118.10%), 롯데(110.17%) 등은 유동비율이 100%를 상회했으나 SK(94.91%)와 한화(81.51%), 한진(77.54%), 현대중공업(73.80%) 등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았다.

상장사들의 지급능력이 떨어진 것은 현금수입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율 1160원
4년만에 최고

주택대출금리
연 10% 육박

고정형 주택대출금리 0.21~0.47%P 인상

환율 급등, 물가상승·소비위축으로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4년1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치 연 10%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서민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의 상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환율 상승은 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가계의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 10% 돌파 초읽기 =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초 신한은행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26~9.86%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47%포인트 급등했다.

대출 최고금리가 지난 5월 7일 이후 5개월여 간 1.97%포인트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주일만에 0.40% 이상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10%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8.43~9.53%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40%포인트 급등했으며 국민은행은 8.11~9.61%로 0.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7.95~9.41%와 8.39~9.09%로 지난 주 초에 비해 각각 0.24%포인트와 0.21%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폭등한 것은 기존 금리가 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유동성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1억원을 8%로 대출한 고객의 경우 금리가 2% 오르면 연간 이자부담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00만원 불어나게 된다.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이번 주 초 주택대출 변동금리는 6.80~8.30%로 지난 주 초보다 0.09%포인트 올랐으며 외환은행은 6.62~7.90%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이 6.56~8.06%로 0.01%포인트 인상하는 등 대부분 은행이 0.01%포인트 올랐다. ◇환율 4년래 최고 = 금리와 함께 환율도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6일 1,160.50원으로 마감하면서 2004년 8월13일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시장에 달러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 이 증사에서 32조4

천억원(약 425억달러) 가량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자본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데다 무역수지가 8개월간 115억7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면서 10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행진도 막을 내릴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쇼크로 외화자금 시장이 패닉(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점도 달러화 매수심리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현물환율과 선물환율간 차이인 스와프포인트 1개월 물은 리버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직후 달러화 자금을 현 시점에 빌리고 나서 나중에 갚으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16일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23일에는 -10.00원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물가부담 가중... 실물경제에 부담 =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고평행정을 하는 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 유가급

등의 파급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내수위축→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다음 달 초 발표될 9월 소비자물가도 원·달러 환율급등 영향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전달의 5.9%에서 5.6%로 둔화했지만 환율상승과 추세 요인 등을 고려할 때 8월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환율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만 최근 세계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세계적 신용경색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환율상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하반기 실물경제 위축 본격화 내년 경제성장률 3%대로 급락

韓銀·국책·민간기관 전망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불안과 실물부진으로 전이되면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개발도상국과 자원 부족마저 경기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3%대 성장 우려... 뚜렷한 침체국면" = 28일 한국은행과 국책·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국내 예측기관들은 내년의 경제성장세가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 5.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3%대 후반에 머물면서 경기 침체 국면이 확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국면은 올해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상

반기 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연구기관은 '4%대 초반'과 '3%대 후반'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금융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면서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복시점 불투명 = 문제는 경기회복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바닥을 친 뒤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유가도 현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가 경기저점이고 그 이후로 회복국면이 될 것 같다"며 "다만 금융불안이 실물 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신형시장, 원자재 부족 등으로의 수출이 얼마나 버텨주는지가 변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우리가족 요리솜씨는 어떨까

28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제 13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에 참가한 가족이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고용 3만4천명 늘린다

SOC 민간·공기업 투자 6천억 추가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을 일차리 창출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약 3만4천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완공을 위한 민간선투자 규모는 당초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기업의 투자규모도 4조6천억원이던 것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근 고용부진

이 지속되면서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실행가능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정상 추진중인 SOC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 매달 집행점검을 실시, 예

산집행 부진 사업의 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연말에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2천명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도 적극 확대, 미취업청년의 직장체험 연수 등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일자리 확충, 공공기관의 청년 인턴제 도입, 초등학교 체육보호교사 지원 등 올해 중 확대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보증금 확대

'네트워크론' 통해... 신보금도 29조원으로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론'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보증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들의 신용도와 성장성 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보증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우량 중소기업의 확대자산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회생 가능성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주거래은행"이라며 "은행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보증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이 보증해주는 방식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먼저 대출한도와 보증금액이 적힌 보증서를 받고 나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5천억원 늘리기로 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연초 계획보다 1조원 많은 29조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두 기관의 보증이 1조5천억원 더 늘어나면 중소기업들은 약 1조8천억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펀드판매시장 문턱 낮춘다

개인투자자문사 허용... 펀드슈퍼마켓도 등장

펀드판매시장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내년 중 개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법인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의 중소시민금융기관들도 펀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

을 도입하고 온라인판매 등의 판매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 간 장기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낮아지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삼성전자서비스*GCA광주점퍼스	삼성전자서비스 A/S엔지니어 정규직 실습생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971-4640
맥스프츠	체육관 홍보, 이벤트 진행요원/초보환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2-383-4814
㈜영풍하이테크	ERP관리자, 네트워크관리등 총무팀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9/30	062-956-8456
인포드림넷*	(광주)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30	062-236-0217
한샘인테리어	경리/캐시/판매관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01	011-9616-5377
㈜테크세움	건설공무업무(건설회사 경력자)	초대졸/경력1년	1800~2000	10/02	062-382-3300
㈜양지애드컴	옥외 광고 디자인 신입/경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4	062-373-5511
㈜슈퍼우도리	사무, 회계 관리 책임급 직원	초대졸/경력2년	2000~2200	10/04	062-951-8600
남해철강*	(광주)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5	062-943-8676
포프리*	고객지원 CS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6	062-366-6626
(재)광주유통방송	라디오방송 구성작가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6	062-383-1079
한국단지공급*	(광주)광산구/생신공공관리 경력직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0/06	032-850-1103
미래에셋생명본사	(편드&변액)금융전문상담원/150만보장/월평균450만	고졸/경력무관	2800~3000	10/06	02-2052-1260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직접콜리 512-6210 제공)

로도복권 (제30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4 10 16 26 33 41	38	
등위		
1	6개 숫자 일치	1,661,646,150
2	5개 숫자+보너스 일치	44,909,356
3	5개 숫자 일치	1,165,250
4	4개 숫자 일치	53,519
5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12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452957
2	1억	5조 224556
3	1천만	2조 784933
4	1백만	20597
5	50만	1505
		66
6	2천	98
		29
		3
		2
		6

하나로텔레콤 사라지고 'SK브로드밴드'로 뜬다

11년만에 사명 변경... CI 선포식

지난 11년간 국내 인터넷 시장을 이끌었던 하나로텔레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SK브로드밴드'로 새 출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1997년 창사 때부터 사용한 '하나로텔레콤' 대신 'SK브로드밴드'로 사명을 바꾸기로 의결하고 새 기업 아이덴티티(CI) 선포식을 가졌다.

서비스 브랜드도 '브로드앤(broad&)'으로 통합했다. '브로드앤'은 '브로드(broad)'를 사용해 CI와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확장을 뜻하는 '&'를 더해 새로운 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는 '브로드앤', 인터넷전화(VoIP) '하나폰'은 '브로드앤폰', 인터넷 TV(IPTV) '하나TV'는 '브로드앤티브'로 각각 바꿨다.

이로써 하나로텔레콤도 공식적으로 SK 상호와 그룹의 상징인 '행복날개'를 사용하는 SK그룹의 일원이 됐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사명은 다음달 교체하고 본사도 12월에 서울역 SK그린빌딩으로 이전한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새 출발을 기념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명 맞추기 퀴즈 이벤트를 진행, 현대차 제네시스(1명), SK상품권 100만 원권(106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k broadband.com 참조)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